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이해와 의학도서관 적용 가능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의학도서관

김 경 채

The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ervices in Libraries and Applicability to Medical Libraries

Medical Library, The Catholic University, Incheon St. Mary's Hospital, Incheon, Korea

Kyung Chae Kim

▶▷ ABSTRACT ◀◀

In the 21st century, our society is becoming multiculturalized rapidly due to diversific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Currently, domestic immigrants reached 1,418,149 people at september 2011. We investigated cases of multicultural services in domestic libraries and analysed actual conditions of the services including program types. To keep pace with these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medical library researche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multicultural services in domestic medical libraries, and Librarians' awareness of the multicultural services and tried to seek solutions in order to give active help to cultural minority users and to support their happy life.

Key Words: Medical library, Multicultural services, Multicultural society

서 론

1. 다문화 사회의 이해

(1) 전지구화와 국제이주: 현재, 국내 체류 이주민은 141만 8,149명(2011. 9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이민자가 2억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인구 중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민자가 전 세계 인구의

3.1%에 달한다는 발표이다. 국제이주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후 가속화된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물결이다. 전지구화 과거의 세계체제와 다른 점은 단순히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넘어 시공간의 압축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대량운송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다(Harvey 1990). 선진국들은 자본과 상품, 정보의 이동에 국경의 장애를 없애고 세계를 단일한 시장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고

자 하는 사람들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민족은 국제이주의 흐름에서 오랜 기간 벗어나 있었다. 한반도 밖으로 한민족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의 일이다. 이후 한국은 국제이주를 통해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다.

(2) 해외로 이주한 우리 민족: 근대적 의미에서 한민족의 해외 이주는 19세기 중반 당시 청나라와의 국경을 넘어 만주로 이주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오랜 기간 자신들의 민족적 기원지인 만주를 신성한 곳으로 보호하던 청나라가 19세기에 이 지역을 해금하자 흉년과 가뭄으로 곤궁했던 조선의 농민들은 비옥한 간도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해외이주는 20세기 하와이행 노동이주였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게 된 한인들이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항을 떠나 1903년 11월 13일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여 이주 노동자로 생활하였으며, 1905년 일제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기근을 피해 간도로 이주하던 한인들은 1870년 전후 연해주로도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신한촌이라는 한인 집거지역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했다. 연해주의 이주는 이후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로 이어졌다. 소비에트 혁명 이후 소련정부는 1937년 8월 21일 극동지역의 한인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집단이주시키기로 했다. 일본인 정보원들의 침투를 막는다는 명분이었으나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장거리 이동 중에 어린이 60%가 사망할 정도로 처참한 강제 이주였다. 우리의 아픈 역사, 이들이 바로 고려인 공동체들이다. 일제 강점기하에서 많은 한인들이 강제 징용으로 군인, 군속노동자 등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전시 노동력으로 징용된 한인의 규모는 백만 명이 넘으며 재일동포의 뿌리를 형성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한

인들이 늘어났다.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으로 가족초청이 늘어나면서 미국 이민자가 급증하여 매년 35,000명 정도가 이민 대열에 합류했다. 남미로 이주하는 한인들도 늘어났다. 정부는 1960년대 남미로의 이민이 국내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장차 식량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농업이민을 추진했다. 간호사와 광부들이 독일로 이주했으며, 베트남 전쟁 중에는 전장으로 일하기 위해 떠나기도 했다.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중동국가로 진출하면서 중동은 한 동안 한국인의 대표적인 노동이주의 목적지가 되기도 하였다. 이주의 동기와 맥락은 다양했지만 1900년대 들어 본격화된 한민족의 해외 이주는 불과 100년 만에 전 세계에 720만 명이 넘는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했다.

(3) 이주민의 증가와 한국사회의 변화: 국제이주에서 노동력을 송출하기만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주민을 수용하는 이주 목적국이 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이다. 국내적으로는 저임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농어촌을 비롯한 도시 저소득층 남성 중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국제이주 형태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걸프전쟁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이 새로운 이주 목적국을 찾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이 늘어난 것이다.¹⁾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1,418,149명(2011. 9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를 넘어선 규모이다.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국(조선족포함 690,055명), 미국(140,869명), 베트남(114,662명), 필리핀

1)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도서관다문화서비스과정 2011 교재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정책', 한진수에서 정리된 자료

표 1. 국제 혼인 건수 현황

년도	전체 혼인건수	국제 혼인건수	비율
2003	320,529	28,468	8.9%
2004	315,590	36,934	11.7%
2005	320,893	43,815	13.7%
2006	337,528	39,071	11.6%
2007	343,559	37,560	10.9%
2008	327,715	36,204	11.0%
2009	309,759	33,300	10.8%
2010	326,104	34,235	10.5%

자료: 통계청, 2010.

(49,629명), 일본(44,684명), 태국(41,502명), 인도네시아(32,315명), 몽골(30,678명) 등의 순이다.²⁾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표 1, 2>.

한국의 다문화인 구성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60만 138명(62%)로 가장 많고, 결혼 이민자 16%, 장기체류 외국인 14%, 기타 8%이다. 결혼 이민자의 출신국은 중국(조선족 포함) 45.4%, 베트남 25.35%, 일본 7.64%, 필리핀 5.58%, 캄보디아 3.13%, 태국, 몽골,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네팔, 파키스탄, 기타 순이고, 성별로는 남자 1만 9,387명(13.53%), 여자 12만 3,866명(86.47%)이다.³⁾

(4) 다문화사회와 문화다양성: 다문화사회는 인종, 민족, 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한 집단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로 이민자가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을 장려하며 동화가 아닌 공존을 모색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주민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한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며 다문화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정부도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간다는 표현을

2)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

3)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

표 2. 배우자별 국제 혼인 건수 현황

년도	외국인 남편	외국인 처	계
2003	7,815	20,653	28,468
2004	10,872	26,062	36,934
2005	12,533	31,282	43,815
2006	9,411	29,660	39,071

주저하지 않으며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에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다문화정책은 대부분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에 머물러 있다<표 3>. 한국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려면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주민과 주류 한국사회의 문화적 소통과 교류가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 간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 내 다양성도 증진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한건수·한경규, 2011).

(5) 한국의 다문화 정책: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은 수용하거나 관리하는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부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국가정책에서 이민을 공식화하고 이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외국인의 이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민정책은 한국으로 이주해 오거나 한국 사회 밖으로 이주해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 전반을 향한 정책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구분 없이 ‘다문화정책’이라는 표현으로 이주민을 지원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2. 도서관에서의 다문화 서비스 의의

(1) 도서관에서의 다문화 서비스: IFLA 다문화도서관서비스분과 가이드라인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내용에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는 관중을 불문하

표 3. 부처별 다문화 정책

부처별	정책분야	정책대상자	정책의 초점
교육과학기술부	-제도권교육 -인적자원개발	-다문화 가족 자녀 -이주 노동자 자녀 -한국인 자녀	-교과학습 부진 지원 -한국어 교육
법무부	-출입국 관리 -국적 및 이민 사회통합 정책	-입국 외국인 전체	-이민자 관리 -국경 관리 -이주민 사회통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의식 전반 -문화와 예술	-이주민 -일반 국민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제고 -문화다양성의 이해 -이주민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 정책 -여성인권	-이주 여성 -다문화가족 및 자녀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다문화 가족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 복지	-저소득층 -소외계층	-저소득층 복지정책 -소외계층 복지정책

표 4. 소수인종 관련 지침 등에 규정된 도서관 서비스 항목

항목	지침/선언 등에 규정된 내용
장서/컨텐츠	지역사회 내 토착민이나 이주민의 문화와 언어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상당한 규모의 장서(단행본, 신문, 정기 간행물, 사전 등),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포맷(인쇄, AV, 지도, 그림, 컴퓨터 SW, 디지털 컨텐츠 등)의 장서, 모국어 유지와 정착국가 언어 학습을 위한 장서(이중 언어 및 다중 언어 장서 포함)
사서 인력	소수인종 출신 도서관 직원 채용, 소수인종 관련 정기 교육, 다국어 능통 직원 활용 및 보상
서비스/프로그램	소수인종의 음악공연, 동화구연, 전시회, 축제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 정착국가 언어학습을 위한 문해(literacy) 프로그램과 도서관 이용 및 정보기술 이용을 포함하는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프로그램, 정착국 언어와 모국어로 서지접근 허용(모국어로 목록구축 및 검색지원), 이주민 장서목록의 종합목록 내 포함 및 상호대차 실시, 참고서비스와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다국어 지원, 소수언어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방문 어려운 소수인종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방문대출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services), 다문화 정보안내 서비스, 취업이나 사회보장 안내 등 새 이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
정보이용 시설/장비	언어학습 SW가 내장된 컴퓨터, 다국어 지원 컴퓨터 등
편의시설	주요 소수언어나 국제적 심볼로 된 이용안내, 안내표지, 양식(회원카드, 상호대차 등), 통지서 등
기타	지역내 교육기관과의 언어교육 협력, 소수인종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다문화 홍보자료 제작 등

고 도서관업무 전반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장서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문화 서비스를 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은 장서이며, 소수 주민의 모국어로 된 자료, 거주국의 마이너리티언어, 공용어 습득을 위해 필요한 어학자료, 그 나라나 사회의 마이너리티언어, 공용어로 된 소수 주민에 관한 자료가 주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용자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위의 자료들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라는 점이며,

자료의 주요내용은 주류 사회문화에 관한 자료, 체류 국가에서 생산된 소수주민의 사회문화에 관한 자료, 소수 주민 출신국의 사회문화에 관한 자료이다.

국제적인 도서관 기구와 각 국의 도서관 기구 등이 제정한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관련 선언, 지침, 도서관 권리헌장, 윤리선언 등에 나타난 핵심적 사항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⁴⁾

4)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도서관다문화서비스과정, 다문화자료의 효과적인 입수방안, 조용완, 대구가톨릭대학

표 5. 국내 주요 이주민 모국에서 생산된 다문화자료 공급업체

회사명	주소	연락처
유비라이브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368-3 401호 대구시 북구 대현1동 21-1	070-8261-5075 053-942-5577
이지북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1 동문굿모닝오피스텔 203-722	031-814-4720
케이론 교육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 대통령테크노타운 3차 901호	02-2107-3770
한결 문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60-8	032-325-4755
AP Books	광주시 북구 매곡동 10-16	062-959-7901

도서관이 새로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 수준대로 서비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주민 모국어를 포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도서관과 사서의 크나큰 과제이다.

(2) 다문화자료 입수방안: 도서관의 일반적인 외국자료 입수방법은 국내서점이나 국내외 도서중개상을 통해 입수하거나 외국 소재 출판사 등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많은 도서관이 인력부족, 언어소통 문제, 업무량 폭증 등으로 국내외 여행을 통해 외국자료를 입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표 5>.

최근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내 외에 인터넷 서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 서점을 통한 도서 등의 주문과 입수는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와 관련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에도 일부나마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3.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국내 도서관계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민간영역의 도서관, 즉 사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출발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의 인권보호와 정착지원 활동을 벌여오던 시민, 종교단체 등은 활동가정에서 이주민의 모국어로 된 자료와 다문화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모국어로 귀환한

이주노동자, 현지의 활동가나 선교사, 여행객 등을 통해 이주민 모국어 자료들을 입수하여 비록 규모가 작고 비체계적이지만 다문화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2004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드림도서관, 2005년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의 꼬마도서관, 2006년 아시아평화인권연대의 민들레도서관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⁵⁾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서 III. 「지식정보격차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라는 과제로 다문화서비스에 관한 사업계획을 포함시키고 있다. 2011년에는 총 570백 만원을 들여 다문화자료실 조성 10개관과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17개관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부분적이거나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 9월 ‘도서관다문화서비스과정’ 개설 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다문화서비스와 관련하여 왕성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 한국전래동화에 베트남어, 영어 자막을 입힌 ‘2009년 다문화가정을 위한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개발과 보급에 이어, 2010년에는 아시아 전래동화 및 우수 창작동화 동영상 콘텐츠 150편을 개발, 보급하였고, 한국 전래동화 2편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 태국어, 몽골어 등 5개 언어로 발간하여 전국 공공도

5) 조용완, 국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현 단계와 과제, 도서관문화, 2011

표 6. 다문화 자료 입수에 활용 가능한 인터넷 서점

국가명	서점명	인터넷주소	비고	국내 배송
태국	Pink Lemon	http://www.pinklemon.com/	태국어, 영어	가능
태국	Buy Thai Books	http://www.buythaibooks.com	영어	가능
베트남	sachvietnam.com	http://vinamall.com/page/gen.jsp?dir=/mall/stores/sachvietnam	베트남어, 영어(미국기반 업체)	가능
베트남	Minhkhai	http://www.minhkhai.com.vn	베트남어	미확인
필리핀	National Book Store	http://www.nationalbookstore.com.ph	영어	가능
네팔	Pilgrims Book House	http://www.pilgrimsbooks.com	영어(네팔, 티벳, 인도, 히말라야지역 자료제공)	가능
인도네시아	inibuku.com	http://www.inibuku.com	인도네시아어	미확인
방글라데시	Online Bangla Book.com	http://www.angelfire.com/electronic/banglabook	영어(미국기반 업체)	가능
스리랑카	monaree.com	https://monaree.com	영어	미확인
미얀마(버마)	foreverspace.com.mm	http://www.foreverspace.com.mm	영어(e-book 다운로드, 선불카드 이용)	다운로드
파키스탄	urducorner.com	http://www.urducorner.com	영어(우르두어, 힌디어 자료제공)	가능
파키스탄	eMarkaz Online	http://www.emarkaz.com/shop/store/books-urdu.php	영어, 우르두어	가능
러시아	my-shop.ru	http://my-shop.ru	러시아어	미확인
러시아	eastview	http://www.eastview.com	영어(구 소련지역 자료를 대행하는 미국업체)	가능
중국	당당 서점	http://www.dangdang.com/	중국어	가능
중국	중국 아마존	http://www.amazon.cn/	중국어	가능
중국	화문 서적	http://www.huawen.co.kr	한국어(국내서점)	가능

서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보급하였다.

공립 공공도서관 내에 다문화자료실/다문화자료 코너를 설치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여러 공공도서관들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다문화자료실 등을 조성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보정책기획단의 ‘다문화도서관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총 16개 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이 조성되었다.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일부 공립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들은 다문화 특화 도서관들로 설립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 평내도서관과 창원 성주도서관 등이 다문화 특화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다문화 특화 작은 도서관으로는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김해다문화도서관, 성환다문화작은도서관, 제천 오로라도서관,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 어울림작은도서관, 닥밭골작은도서관, 고맙습니다 시흥다문화작은도서관, 화도다문화도서관 톨레랑스, 다문화도서관 건강보험 Zone 등이 개관하였다.

한글교실, 한국문화 체험, 한국요리 체험, 지역사회 이해 등 지역 내 여타 다문화관련 기관과 단체들과 차별성없이 중첩적으로 제공되던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각 도서관에서 다문화 자료를 입수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다문화자료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 자료를 업체 등을 통해 입수하여 다문화자료실 또는 다문화자료코너를 설치하는 도서관들이 증가하면서 독서클럽, 독서지도, 동화구연, 북스타트 등 다문화도서 기반의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널리 확장되는 추세이다.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모범사례로 어린이 도서관 ‘모두’가 있다. 2008년에 동대문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푸른시민연대가 세운 다문화 어린이도서관으로 다양한 문화가 모두 모인다는 뜻이다. 12개국의 다언어 장서 5,919권을 보유하고 있다(네팔,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영어, 이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언어로 된 장서). 모두지기 2명, 자원활동가 70여명이 370여명의 회원에게 봉사하고 있다. ‘모두’의 운영철학은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도서관, 그들을 주인으로 만드는 일이다. ‘모두’의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은 ‘나만의 책 친구’, 다양한 나라의 동화와 함께 하는 ‘엄마나라 동화’, 보육 프로그램 ‘또래오래’, ‘신나는 토요일’, ‘우리 둘만의 비밀노트’ 등이 있다.⁶⁾

4.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 사회의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함께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 비롯된 다국어, 다문화자료의 구비와 다국어, 다문화 정보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공공도서관으로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 언어적 다양성으로 인해 자료의 선정, 입수, 목록구축, 참고봉사, 프로그램 개발, 이벤트, 각종 장비와 시설, 안내와 표시 등 모든 면에서 기존 도서관에서 시행하던 일반적인 서비스와는 다른 상황이 요구되고 있다.

6) ‘모두’ 홈페이지와 문종석 ‘모두’ 관장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원「도서관다문화서비스과정」 강의 등을 정리함

최근 도서관계와 정부 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분야별 다문화정책을 펼치면서 도서관계의 다문화서비스는 최근 몇 년간 질적, 양적으로 큰 성장을 보였다. 많은 도서관들이 관심을 갖고 다문화 장서 보유에 힘쓰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책, 예산, 기술적 지원을 원만하게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구비하는 등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시작 단계에 있으며 주로 공공 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사례를 조사, 프로그램 유형 등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의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조사, 다문화서비스의 실태와 적용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문화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법정 재정적 관련, 사서 인식에 관한 중요도 조사,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사서의 의견이나 제안, 응답자 인적사항으로 조사하였다. 전국 의학도서관 중 62개 의학도서관의 전자우편 응답지와 그 중 7개 도서관 사서와는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 서비스 제공여부, 다문화 서비스가 필요한지, 지역적·국가적 협력, 자원, 통계, 장서정보의 상황,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사서의 의견과 제안 등을 파악하였다. 의학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수그룹이용자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의학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여 다문화 서비스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방법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의학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에

표 7. 설문지 배포 및 회신 내역

구분	배포매수		회수매수		회수율
대학도서관	53	19	수도권 9	비수도권 10	35.8%
병원도서관	86	38	수도권 29	비수도권 9	44.2%
연구소·제약회사	22	5	수도권 3	비수도권 2	22.8%
계	161	62	수도권 41	비수도권 21	38.5%

표 8. 응답한 사서의 근무기간

근무 기간	빈도	백분율
10년 미만	24	38.7%
10년 이상	22	35.5%
20년 이상	11	17.7%
30년 이상	3	4.8%
무응답	2	3%
합 계	62	100%

표 9. 응답한 사서의 담당업무

담당 업무	빈도	백분율
수서업무	42	19.0%
정리업무	36	16.3%
대출업무	39	17.6%
참고업무	51	23.1%
행정·기획업무	26	11.8%
전산업무	1	0.5%
다문화업무	-	-
팀(과)장, 도서관장	13	5.9%
기타	13	5.9%
계	221	100%

*중복응답 문항임.

대한 현황 및 인식조사를 하였다. 도서관장이나 팀(과)장, 사서에게 각 도서관 당 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2012년 11월 5일부터 22일까지 전자우편과 팩스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IFLA에서 제안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가이드라인(2009. 3판)을 토대로 한 김영미⁷⁾의 설문을 참고로 구성하였다. 전국 의학도서관 중에서 대학도서관 53부, 병원도서관 86부, 연구소·제약회사 도서관 22부 총 161부를 배포하여 반송된 전자우편 2건이 있었으며 총 62명이 응답하여 39%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 3명은 설문내용 일부의 답변이 누락되어 재의뢰하여 팩스와 전자우편을 통해 회수하였고, 7개 도서관(팀)장 및 사서와는 답변내용을 전화 인터뷰하여 내용을 추가하였다<표 7>.

7)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2010, 한성대학교 대학원

분 석 결 과

1. 의학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현황 조사 분석

설문에 응답한 담당사서 62명은 여자 46명(74.2%), 남자 16명(25.8%)이다.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사서가 59명(95.2%), 무자격자가 3명(4.8%)이었다. 사서가 인식하는 다문화서비스의 중요도 인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또한 <표 8>과 같이 사서의 도서관 근무기간은 10년 미만(38.7%)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13.4년 근무하였다. <표 9>와 같이 사서의 담당업무는 참고, 수서, 대출, 정리, 행정·기획, 전산 업무 순서로 다양하고 업무를 수행

다문화서비스 제공여부
 □ 서비스 하고 있다
 ■ 서비스 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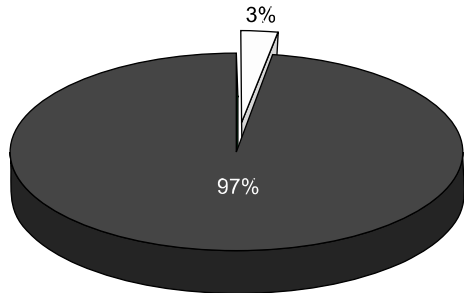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서비스 제공여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중 팀(과)장, 도서관장이 13명(5.9%)이었다.

2. 다문화 서비스 일반사항

다문화 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한 도서관 62개에서 60개 도서관은 서비스하고 있지 않고, I 대학교 의학도서관, D 대학교 의학도서관 2개 도서관만이 서비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그림 1>.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표 10>과 같다.

사서들은 인근에 제공할 대상이 없고, 다언어 자료가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직원과 공간 및 시설 부족을 꼽았다. 재원이 부족한 것을 중요한 이유로 들지 않은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의학도서관의 이용자가 대개 지역사회에 오픈되어 있지 않고, 교직원들에게도 이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병원내에 있는 의학도서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도서관이 아니므로 이용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다문화 서비스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가 31명, ‘아니오’가 31명으로 의견이 나뉘어졌다. 도서관위원회에 62개 도서관 모두가 다문화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문화 서비스를 위한 지역적·국가적·세계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57개 도서관이 협력하지 않고

표 10.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 중복응답 문항임

이유	응답자수	백분율
인근에 제공할 대상이 없음	26	42%
직원 부족	23	37.1%
재원 부족	19	31%
다언어 자료 부족	25	40%
공간 및 시설 부족	23	37.1%
기타	11	18%

있다고 답했고 5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이 늘어나고 다언어 자료가 구비될 경우, 다문화서비스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3. 다문화 서비스 법적 및 재정적 체계

다문화 서비스를 위한 재원은 모든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나 관련단체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관련 통계는 1개 도서관이 준비되어 있었고, 61개 도서관이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른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다문화 장서 정보는 62개 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나 관련단체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관련 통계와 다른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다문화 장서 정보에 대해서 의학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공지하여 필요시, 열람 및 내려받기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4. 다문화 서비스 중요도 조사를 위한 사서의 인식조사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인원 30명이 ‘매우 중요’에 답했고, 주차 가능성은 가장 많은 인원 22명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도서관과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인원 25명이 ‘조금 중요’, 사서의 친절함에는 가장 많은 인원 39명이 ‘매우 중요’, 도서관 개관시간도 가장 많은 인원 23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도서관에서 집처럼 편안한 느낌

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인원 30명이 ‘조금 중요’, 참고 서비스는 가장 많은 인원 27명, 숙제 도움 받기는 가장 많은 인원 21명, 인터넷 이용은 가장 많은 인원 27명이 ‘매우 중요’에 답했다. 도서관의 부대 서비스(냉방, 프린터, 복사기)와 모국어로 말하는 사서, 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각 가장 많은 인원인 28명, 25명, 31명이 각각 ‘조금 중요’에 답했다. 영화 보기, 영화 대출하기, 음악 감상실 사용하기는 가장 많은 인원인 32명, 33명, 29명이 각각 ‘보통’으로 답했다. 컴퓨터 사용하기는 가장 많은 인원인 21명이 ‘매우 중요’로 답했다. 인터넷 서핑하기, 모국어로 이메일 보내기, 모국어 인터넷 홈페이지, 모국어 컴퓨터 키보드 자판, 도서 대출, 강의와 문화활동은 가장 많은 인원인 20명, 31명, 25명, 29명, 32명, 32명이 각각 ‘조금 중요’, 음반대출은 가장 많은 인원인 23명이 동일하게 ‘조금 중요’와 ‘보통’에 답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소는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 사서의 친절함, 도서관 개관시간, 참고서비스, 숙제 도움 받기, 인터넷 이용, 컴퓨터 사용하기이고,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요소는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도서관에서 집처럼 편안하게 느낌, 도서관의 부대 서비스(냉방, 프린터, 복사기), 모국어로 말하는 사서, 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 서핑하기, 모국어로 이메일 보내기, 모국어 컴퓨터 키보드 자판, 도서 대출, 음반 대출, 강의와 문화활동이다. ‘보통’으로 여기는 요소는 주차 가능성, 영화보기, 영화 대출하기, 음악감상실 사용하기, 음반대출이다.

의학도서관 사서의 입장에서 볼 때 다문화인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사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의 요소중 가장 순위가 높은 항목은 ① 사서의 친절함, ②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 ③ 참고서비스, 인터넷 이용, ④ 도서관 개관시간, ⑤ 모국어로 말하는 사서, ⑥ 숙제 도움 받기, 컴퓨터 사

표 11. 다문화인들의 도서관 이용을 위한 사서의 의견 중요도 순위 *매우 중요 항목임.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중요도 순위
사서의 친절함	62	63%	1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	62	48.39%	2
참고 서비스	62	43.6%	3
인터넷 이용	62	43.6%	
도서관 개관시간	62	37.1%	4
모국어로 말하는 사서	62	35.5%	5
숙제 도움 받기	62	33.9%	6
컴퓨터 사용하기	62	33.9%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62	33.9%	
도서관의 부대 서비스(냉방, 프린터, 복사기)	62	31%	7
도서 대출	62	31%	
모국어 인터넷 홈페이지	62	29%	8
인터넷 서핑하기	62	29%	
모국어 컴퓨터 키보드 자판	62	27%	9
도서관에서 집처럼 편안하게 느낌	62	24.2%	10
주차 가능성	62	24.2%	
강의와 문화활동	62	22.6%	11
모국어로 이메일 보내기	62	21%	12
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62	19%	13
음반 대출	62	13%	14
영화 보기	62	1.7%	15
영화 대출하기	62	0	16
음악감상실 사용하기	62	0	

용하기,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⑦ 도서관의 부대 서비스(냉방, 프린터, 복사기), 도서 대출, ⑧ 모국어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서핑하기, ⑨ 모국어 컴퓨터 키보드 자판, ⑩ 도서관에서 집처럼 편안하게 느낌, 주차 가능성, ⑪ 강의와 문화활동, ⑫ 모국어로 이메일 보내기, ⑬ 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⑭ 음반대출, ⑮ 영화보기 순이었다<표 11>.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사서의 친절함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 본인의 친절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서 본인의 업무태도, 친절도가 다문화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김영미⁸⁾의 연구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그 순위가 ① 모국어 사용 가능한 키보드, ② 집과 도서관의 거리, ③ 사서의 친절도, ④ 도서대출, ⑤ 참고 서비스, ⑥ 버스정류장과 도서관의 거리, ⑦ 강의와 문화활동, ⑧ 분위기 좋은 도서관, ⑨ 각종 무료 서비스, ⑩ 모국어 사용 가능한 사서 순으로 차이가 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다문화서비스를 이미 시행하면서 직접 체득한 노하우와 문제점 등을 감안한 응답인 것으로 볼 때, 의학도서관에서의 다문화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담당사서는 참고로 여겨 볼만 하다.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음반 대출, 영화 보기, 영화 대출하기, 음악감상실 사용하기의 중요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다. 모국어 자료, 한국어 배우기나 문화 정보 등의 획득 등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다문화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다문화 서비스 중요도 조사를 위한 사서의 인식조사

의학도서관 사서들의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의견과 의학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표 12>와 같이 다양하다.

다문화서비스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회의적이고, 다문화서비스까지 고려하기에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크고, 공공도서관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의료인만을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의학도서관에서도 다문화인들을 껴안

8)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2010, 한성대학교 대학원

고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서들도 있다. 이미 S 병원 도서관에서는 몽골환자들을 위해 몽골어로 된 도서를 준비하였고, I 대학 도서관에서는 자매결연으로 교류하고 있는 다문화인 의사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A 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다문화인 유학생들에게 도서실 이용법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D 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열람증을 소지한 유학생들에게 동일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B 병원에서는 다문화인들을 위해 소아과 병동내에 별도의 학습실을 마련해 두고 숙제나 공부를 도와주고 있는데 간호부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영어권 도서가 많고 그 외 기타 다른 언어의 도서도 구비되어 있고 전문 인력없이 이용자 스스로 열람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의학도서실과 연계활동으로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자원과 시설, 인력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다문화인들을 위한 의학도서관의 열린마인드를 엿볼 수 있으며 이제 의학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맺 는 말

의학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는 62개 설문조사에 응답한 62개 도서관중 2개 도서관만이 다문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이 늘어나고 다언어자료가 구비될 경우, 다문화서비스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법적·재정적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도서관 상호협력 및 의학도서관협의회 차원에서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다문화 서비스 중요도 조사를 위한 사서의 인식조사에서는 사서의 친절함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 본인의 친절도를 가장 중

표 12.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의견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

구분	도서관	의견 및 제안
긍정적 측면	B 병원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다언어로 된 병원이용안내 리플렛 제작 등).
	D 대학교	열람증을 소지(유학생 포함)한 모든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K 병원	병원에서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의학도서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자료 제공 및 인터넷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D 대학	도서관 특성상 다문화인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없었지만, 앞으로 다문화인들이 이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언어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모든 언어를 익힐 수 없으므로 영어로 된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간 회화 책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H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대상자가 생겼을 때 다문화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서관 연결해주기.
	S 병원	제2외국어 한 가지는 원활하게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도서관에서의 서비스는 아직 없지만, 다문화인 환자를 위해 전용 사무실을 운영하며, 전문 의료인이 배치되어 있다.
	G 병원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적 서비스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E 병원	다문화서비스와의 직접적인 연계는 어려운 면이 있다.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중 의학에 관련된 공금증을 국제간호사나 국제진료소와 연계해주거나 의학관련 논문 및 자료를 원하는 이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제안한다.
	B 병원	의학도서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한다.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수화서비스를 해 주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의미이다.
	C 대학교	진료안내,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담긴 자료 등을 도서관에 구비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서비스
	I 병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다문화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모국의 진료안내 팸플릿 등을 제공하고 의료정보제공을 위해 의학도서관내 공간을 제공하며, 연중 프로그램으로 장기입원환자와 지역 다문화인을 위한 음악회 등 프로그램을 개최하면 좋겠다. 의학도서관 본연의 업무 외에 다문화인들을 위한 이러한 작은 배려는 변화하는 우리사회에 의학도서관도 함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B 병원	본 병원은 간호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소아과 병동 내에 별도의 학습실을 마련해 두고 숙제나 공부를 도와준다. 전문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이용자 스스로 열람하는 방식이다. 영어권 도서가 많고 그 외 기타 다른 언어의 도서도 구비되어 있다. 바자회를 통한 기증 또는 각종 단체로부터 기증받아 도서를 구비하고 있다.
	J 대학교	현재 다문화 언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다문화 언어권자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다문화언어 능력을 갖춘 사서의 역할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본다.
	G 대학교	그들만의 공간을 도서관에 만들어주면 좋겠다. 도서관까지 오기도 힘들지만 일단 온다 해도 기존 학생 등의 국내 이용자와 같이 지낸다는 것이 큰 부담일테니 조그만 토의실 크기라 해도 그들의 언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PC, 음악, 간식 등)을 마련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도록 한다.
	A 대학교	몇 년전 베트남에서 온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 교육, 홈페이지 검색법 교육을 1회 실시하였다. 간호대 요청에 의한 것이었지만, 앞으로도 유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서비스로 확장할 수도 있겠다.
	I 대학교	우리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몽골, 중국 등에서 온 의사들에게 도서관 이용을 오픈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요즘 하루 2~3명 정도의 외국인 의사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를 열람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면서 이용하고 있다.
	S 병원	우리병원은 몽골과 교류하고 있다. 병원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방침에 따라 몽골어 통역인까지 배치하여 몽골인들이 내원하여 진료, 입원 치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를 돕고 있다. 도서관에서도 몽골도서를 준비하여 이용을 대비하고 있으나 이용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인근 교회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얻어 현재 환자들을 위한 이등문고 대출, 만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점차 이 활동을 늘려 다문화서비스로 영역을 넓혀 그들을 꺼안고 가야할 사명감을 갖고 있다.

표 12. Continued

구분	도서관	의견 및 제안
부정적 측면	B 병원	의학도서관이 서비스대상을 의료진 외에 일반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건 맞겠지만, 의학도서관에서 다문화서비스까지 고려하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너무 크다.
	I 병원	의학도서관은 교직원의 학술지원을 위한 부서이며, 교직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교직원에게조차 인력적인 문제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도서관은 원내 교직원을 주요 타겟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G 대학교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온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활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학도서관을 비롯한 전문도서관들은 해당 전문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문화서비스는 일반적인 정보를 다루는 공공도서관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D 병원	대부분 병원 의학도서관의 입장은, 다문화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도서관은 수익창출보다는 지출만 하는 부서로 경영진들의 인식이 있어 재정적 지원, 인력 등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B 병원	현재 의학도서관의 인력으로 다문화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 보다는 의료진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도서관의 전문화에 좀 더 바람직하다. 본 원은 일반 환자나 보호자를 위해 사회사업과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서비스를 하고 있다.
	D 병원	의학도서관은 주로 병원내에 위치해 있어 다문화인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병원 내에서 접할 수 있는 다문화인은 아직 많지 않다.
	E 병원	의학도서관은 의료전문인이 서비스 대상이다. 다문화 서비스의 가능성이나 중요성에 모두 회의적이다.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서 본인의 업무태도, 친절도가 다문화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문화서비스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회의적인 입장과 의학도서관에서도 사회적 흐름과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 그들을 함께 껴안고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은 희망적이다.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는 특히 의학도서관의 담당 사서나 도서관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업무의 성격이 다양하여 쉽게 추진할 수도, 지속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의학도서관에서 다문화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기관내 타 부서(팀)과의 협력,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의학도서관의 이용자가 의사, 전공의, 수련의, 학생, 직원들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다문화가정의 환자나 보호자들을 위해서도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

은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옥연⁹⁾은 이에 다문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은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단체, 각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여성인력센터, 보건소, 경찰서 등 다방면의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도서관계와 정부 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의 분야별 다문화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도서관계의 다문화서비스는 최근 몇 년간 질적, 양적으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많은 도서관들이 관심을 갖고 다문화 장서 보유에 힘쓰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주로 한글교실, 한국문화 소개, 한글 문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

9)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도서관다문화서비스과정, 국내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례, 김해다문화도서관 사서

나, 이러한 일방적 주입교육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문화사회는 다양성 사회이다. 인종이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한 인종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회,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다양성이 존중되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리 의학도서관이 다문화인들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

다문화사회로 가는 프로그램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문종석¹⁰⁾은 이주민만의 지원교육(차별교육)을 지양하고 이주민-선주민 통합교육(인식교육)을 지향, 일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지양하고 같음과 다름을 세밀히 주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프로그램 담당자의 빈약한 상상력에 기반한 기획을 지양하고 이주민의 관점과 욕구에서 기반한 프로그램을 기획, 이주민을 일방적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이주민을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구상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묻고, 듣고, 함께 공감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다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안을 살펴보면 첫째, 가능한 한 다문화 도서를 구비하여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학관련 논문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문화인(유학생, 의사, 환자, 보호자 등)의 정보제공 희망 서비스에 대해 이용시 설문하여 장서 구입 등에 참고한다. 도서가 구비되었다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으로 간략하게라도 준비된 장서목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둘째, 의학도서관 내에서 다언어 서비스가 어렵다면, 기관내 국제진료센터 등과 연계하여 통역서비스를 대신해 줄 수 있다. 팩스나 전화로 모국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외국인진료상담, 감면 문제 등을 사회사업팀에 연계할 수 있다. 주민센터,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결연을 맺고 온라인 자료 제공을 해 줄 수 있다.

셋째, 입원 또는 내원 환자, 지역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해 독서지도,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생활과 성장을 돕고 독서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다.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사서들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넷째, 영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으로 확대)로 병원이용 안내 팸플릿(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배포한다(다문화가정 어린이 교육용).

다섯째, 각 기관 도서관에서는 가장 많은 다문화인들을 위한 병원 진료 안내 팸플릿, 브로셔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그들의 진료 및 병원 이용을 돕는다. 점차 소수의 다문화인들을 위한 자료 제작으로 확대해 나간다.

여섯째, 의논할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다문화인들이 의학도서관에 찾아오면 쉼터로 정보공유의 공간으로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둔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자유로운 검색, SNS (Social Network Service) 사용과 전자우편 송·수신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안락한 좌석을 구비하여 차와 함께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일곱째, 각 기관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다문화인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편안하게 학교 및 병원, 연구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월간·연간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다문화인들을 위한 ‘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외국인과 한국인과 함께 어우러져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어 동화 읽기 등으로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다문화인들은 각기 모국의 문화를 소개하게 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이해와 나눔의 시간이 되도록 한다.

아홉째, 다문화인을 위한 도서관 이용교육, 컴퓨터

10)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도서관다문화서비스과정, 도서관과 다문화.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관장

터 활용교육은 그들의 한국생활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든 프로그램에 기관과 연계 또는, 지역의 자원활동가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하기를 권장한다. K-Pop 등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올해 9만명을 넘어서고¹¹⁾ 국내병원들의 외국인환자 유치경쟁으로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2020년 100만명 시대¹²⁾를 앞두고 있다. 대학교의 의학도서관은 유학생들을 당연한 이용자로 대우하고, 병원의 의학도서관들은 외국인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다문화서비스 시행을 제안한다.

현재, 의학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며, 선뜻 수용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난제인 것이 사실이지만, 소수자를 위한 우리의 작은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교에는 교환학생 및 유학생을 위한 다문화 서비스가 필요하고, 병원에서는 외국인환자들을 위한 다문화서비스가 필요하다.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다문화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교육과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인식을 넓히고, 공공도서관에서 쌓아놓은 다문화서비스의 지식과 경험 등을 토대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에서는 볼 수 없는 특화된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 의학도서관에 알맞은 작은 서비스를 하나 하나 시행해보면서 사명감을 지닌 의학도서관 사서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의 개척을 고려해볼 수 있다.

11) 조선일보, 2012, 11, 21, [시론] 눈앞에 온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 2004년 1만 6,832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는 9만 명을 넘어서서 유학생 1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섭, 2012. 11. 외국인환자 유치설명회 연설문 중에서

참 고 문 헌

1. 조용완, 이수상. 국내 다국어/다문어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11;42(1):269-97.
2. 한운옥, 조미아, 김수경.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9;43(1): 135-60.
3. 조용완. 다문화사회의 가교. 국회도서관보 2010;3:17-23.
4. 조용완. 국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현 단계와 과제. 도서관문화 2011:21-32.
5. 문종석. 도서관에서의 다문화 서비스. 도서관문화 2011:14-20.
6. 조재순.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 도서관 선언(도서관 정책자료 부록). 도서관연구소 웹진 2010;50:1-4.
7.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서비스 지침서 ①. 도서관연구소 웹진 2010;50:1-11.
8.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서비스 지침서 ②. 도서관연구소 웹진 2010;51:1-14.
9.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다문화서비스과정. 사서교육훈련교재 2012:1-118.
10. 조선일보. 시론-눈 앞에 온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 2011: 11. 21. A33면.
11. 뉴욕일보. 한국체류 외국인 141만명...인구 3%에 육박. 2011: 12. 20.
1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2008.
13. 오지은. 지역공공도서관 역할에 관한 사서인식 연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9.
14. 이영미. 公共圖書館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認識에 관한 研究[학위논문]. 서울: 한성대학교대학원 2010.
15. 양수연.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모형 개발[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11.
1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 <http://www.immigration.go.kr>.
17.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18. 통계청 e나라지표. 국외 한국인/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_idx_cd=1534.